

인간 골 간섭나사못의 초기 고정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김정만 · 김양수 · 최용섭 · 오인수

목 적

인간대퇴골 골피를 깎아 만든 나사못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간섭 나사못으로 사용하여 그 초기 고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재료 및 방법

2000년 12월초부터 2001년 4월까지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골-슬개관-골 동종이식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2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26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진구성 파열이 26례로 대부분이었으며 스포츠 손상이 23례, 교통사고가 5례였다. 동반 손상으로는 내측반월상연골 단독 손상이 15례로 가장 많았고 외측 반월상연골 단독 손상이 2례, 내, 외측반월상연골 동시 손상이 4례, 외측측부인대와 외측반월상 연골 손상이 1례였다. 사용된 인간골 간섭나사못은 대퇴골에 한 개, 경골에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골 부위에 2개를 사용한 것도 3례 있었다. 전방십자인대의 재건술 후 다음 날부터 운동제한 보조기의 신전 고정 상태에서 즉시 전체중 부하를 허용하고 보행하지 않을 때는 0°~90°의 굴곡-신전을 허용하였다. 수술후 6주부터는 자유 보행을, 술후 3개월부터는 조깅과 수영등 일부 스포츠를 허용하였다. 최종 검사시 Lachman 검사등 이학적 검사, KT 2000 검사등을 시행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28례중 27례는 이상이 없었으나 단 1례에서 이완 소견을 보여 5개월후 경골 터널에서 이식골편이 미끄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간섭나사못을 제거하고 barbed staple 두개로 원위로 견인하에 고정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간섭나사못의 이상이 아니라 경골 터널이 너무 커진 기술적 실패로 보였다.

결 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인간 골 간섭나사못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초기 고정력에 문제가 없었다.